

잘못 알기쉬운 거북선·이순신·임진왜란 상식

이 내 원
(2005년 7월)

1. 거북선은 이순신 함대의 주력전함 이었나?

아니다. 주력전함은 판옥선 이었다. 조선수군의 판옥전선 보유척수는 80~180 인데 비해 거북선은 단 3 척으로 주로 돌격함으로 맹활약했다. 제 1 차 해전인 옥포해전과 위기의 명량해전에서는 거북선 없이도 일본수군을 격파했다.

2. 거북선은 과연 이순신의 발명품인가?

이순신의 발명품이라기 보다는 이순신의 개발품이라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이유는 이순신보다 약 180여년전인 태종실록에 ‘임진강에서 수전 연습하는 거북선을 보았다’ 는 기록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태종때의 거북선은 선체가 작고 화포를 장착하지 못해 위력이 없었는데 이순신은 명종때 대형화된 판옥선에 등판과 쇠못을 박아 화포를 10여문 장착하여 막강한 전투함으로 재개발해 적을 무력화 시키는 돌격전함으로 기선을 제압하는데 긴요하게 사용했다.

3. 이순신 수군이 일본수군을 격파하는데 가장 긴요하게 사용한 일등 무기는?

오늘날의 대포와 같은 화약무기인 총통, 일명 화포였다. 우리나라 에서는 고려말에 최무선이 화약 만드는 법을 알아낸 후 화약과 화포 기술이 눈부시게 발전하여 있었다. 이순신은 2차 출전을 마친 후 임금께 올리는 전황보고서인 “임진장초” 에 ‘전부 화포로 적을 격파했다’ 고 스스로 밝혔다.

4. 이순신 수군의 화포는 포탄을 발사했나?

아니다. 주로 장군전, 차대전 이라고 불리던 셋가래 굵기의 대형 나무화살을 발사해 적선을 충격으로 파괴하였다.

드물게는 둥글둥글한 수마석 돌, 자갈, 조란탄(새알탄) 이라는 여러 개의 쇠공을 산탄형으로 무더기 발사하거나 후기에는 가끔 오늘날의 수류탄과 같은 비격진천회 라는 2차 폭발성 포탄을 발사하기도 했다. →추가참조 : 총통발사체(

5. 일본군의 신무기 조총과 조선군의 재래무기 활

임진왜란 때 처음 등장하여 돌격 근접전이 가능한 육전에서 높은 살상률로 위력을 발휘한 일본군의 조총은 화약을 장전하는데 시간이 걸려 연속 사격을 할 수 없고, 사정거리가 불과 50~100m 밖에 되지 않으며, 비오는 날에는 불실(화승)이 젖어 쓸수가 없고, 관통력이 약하여 두께 4~5cm 의 참나무 방패판도 뚫지 못하는 형편이어서 근접전을 허용치 않으며 거북선 돌격전을 감행하는 이순신 수군에게는 힘을 쓸 수 없었다.

반면, 이순신 함대의 화포는 사정거리가 500~800m 나 되며 조선군의 ‘편전’이라는 짧은 화살은 탄도장치인 ‘통아’를 써서 조총보다 멀리 정확도가 높게 연속 쏠 수 있어서 개인 무기로서 그 역할을 훌륭히 다 했으며 이순신은 늘 이 사정거리의 격차를 최대한 활용하여 우리 수군을 완전히 보호하며 적에게만 막대한 피해를 주는 일방적 압승을 거뒀던 것이다.

6. 충무공이라는 시호는 이순신에게만 쓰이는 고유 시호인가?

아니다. 충무공 하면 곧 이순신이라는 인식이 일반화 되어있지만 충무라는 시호는 큰 무공을 세운이에게 주어지던 가장 높은 등급의 일반 시호로서 고려 때 2명, 조선시대 때 9명의 충무공이 있었다.

진주대첩을 이룩한 ‘김시민’도 충무공이니 임진왜란 때만도 2명의 충무공을 배출한 셈이다. 세조 때의 유명한 청년장군 ‘남이’와 중국의 전설적 전략가 ‘제갈량’도 충무라는 시호를 받았다.

7. 이순신은 체격이 우람한 무장이었나?

아니다. 유성룡의 인물평처럼 선비 같은 병약한 지장이었다. 난중일기에 보면 아파서 괴롭다는 기록이 7년 동안 180여 회나 되니 일년에 한 달쯤은 병으로 고생한 셈이다. 오늘날의 의료 전문인들은 난중일기의 병증으로 보아 위염 또는 위궤양을 앓은 것으로 보고있다.

8. 임진왜란의 올바른 인식

임진왜란은 그 이름처럼 조선과 일본사이의 사소한 국제분쟁이 아니라 화약무기가 동원된 본격적인 근대전이며 참전한 조선, 명나라, 일본 세 나라의 수백만 인명 피해와 더불어 세 나라의 존망을 가름한 동양대전으로 이해 되어야 한다.

이 전쟁으로 침략의 원흉 토요토미는 몰락하고 도꾸가와 막부가 집권케했으며 명나라는 청나라에 국권을 내어주고 조선의 전국토가 초토화되어 농지가 3분의 1로 줄고 수천년 문화재가 무더리고 약탈 당했다.

9. 명나라 군사는 과연 구원군 이었나?

아니다. 왜구들의 침략활동 범위는 대단히 광범위하여 대련, 산둥, 해남, 광둥 등 중국의 동남해안이 모두 피해를 당하던 경험이 있어 명나라의 참뜻은 자기네 방어선을 조선반도에 고착시키려던 의도로 보아야 한다.

그러므로 전쟁 당사국인 조선의 희망을 철저히 무시한 채 싸움을 기피하며 강화 협정으로 전쟁을 마무리 하려고만 획책하고 침략자 일본군 못지 않게 우리 조선 사람들을 괴롭히고 약탈 하였다.

오죽하면 영의정 유성룡이 “왜군이 열레빗 이라면 명군은 (아무것도 남겨놓지 않고 싹 쓸어가는) 참빗” 이라고 한탄 했을까.

